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합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권지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권지자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요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온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74호

서기 2002년 6월 19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정신계 · 물질계 같이 돌아가야 자유인

여러분과 같이 오늘 한 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러나 일제하의 역사를 낱알이 봐 왔고 6.25의 참변을 낱알이 봐 왔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때는 얘기만 듣고 책으로만 봤지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

부엌에도 있고, 뭐 말도 못했습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오늘 내가 눈물을 금치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물질계만이 단 줄 아시지 마세요. 지금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물질계의 발전이지 정신계의 발전은 아닙니다. 본래 알고 보면은 정신과 물질이 같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정신계를 무시하고 가는 반면에 천체물리학을 연구하니 하더라도 그것은 심성천체물리학을 연구해야지,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야만 자유인으로서 자유스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더더욱 아픈 것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나쁜 짓, 사기, 도둑질, 뭐 말로 어떻게 다 할까와 는 그렇게 마구 사는 분들이 있지요. 요즘 더더욱, 젊은이들이 더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래도 많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계 50%를 모르고 산다면 바로 반쪽만 사는 격이 됩니다. 반쪽만 살아서 항상 걸리고 걸려서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모습을 또 바뀔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자동적인 컴퓨터, 오싹이라는 자체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심안으로 보는 천안통, 심안으로 듣는 천이통, 또는 가고 움직이지 않고 오는 신족통.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타심통. 부모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키는 데는 남녀의 정자 난자를 형어서 바로 삼합이 한데 합쳐짐으로써 형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성을 시켜서 자기가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부모는 인연에 따라서 빌려서 내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오싹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나왔으니, 내가 어디서 나온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속명통(宿命通)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다 포함해서, 한 가지만 거기서 떨어져도 자동 컴퓨터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섯 가지가 다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반면에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자 운명, 고라는 것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는냐고 하는데, 삼천 년 전이나, 몇 억 광년 전이나, 지금이나 1초 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숨에 끄달리고 관습에 끄달려서 그렇지, 한번 생각을 넓고 깊게 해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본래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착을 두고 붙잡고 늘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를 가져야 한다. 내가 말했다 내가 빌었다 이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여

개발전소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용광로에다 찌그러진 쇠를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재성이 돼서 나옵니다. 용광로에다 넣어서 다시 만들어서 여러 가지들 다 생산시켜서 내보냅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가 없으니 없으니 이런 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를 형성시킨 고통이나 나를 이끌어 가는 거니까 내면세계 정신계를 파악하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할 것도 없어요. 하늘이 무너진 데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론으로만 배운다고 그래서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배우지 말고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선(禪)과 교(敎)는 둘이 아닙니다. 천지도 둘이 아니요, 남녘도 둘이 아니요, 북녘과

너를 만남이 있어야 바로 무의 세계의 전체를 알 수 있고 자유인이 되니라. 그걸 가지고 이롭게 도라고 하며, 그걸 가지고 성불이라고 하며, 그걸 가지고 바로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입신여기면 안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다른 싸움 말고 다른 형상을 믿으면서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 하나 있다면, 싸움 반드시 제 뿌리를 믿어야만 제 뿌리에서 바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 맺고 열매가 맺으면 제 나무에서 무르익는 열매 맛 하나에, 한 맛에 만 가지 맛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 나무에서 익은 열매는 두루 일체 중생들, 유주 무주 보이는 중생이 나안 보이는 중생이나 다 맛있게 먹고 깨우친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풀어내어서 지금의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그걸 잘 못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부처님이 그 시대에 방편을 썼던 말을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좋은 것은 싸움 싸움대로 귀결이 되고, 한마음이 이루어지고 토평 토평치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우주 전체가 또는 세상 전체가 뿌리에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싸움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한마음이라면 뭐는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모습, 생명, 의식들이 세로 하나 하나에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짜고 온갖 약단들을 하는데 지금 의사들이 정신계의 의약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도 안되죠. 한 30~40%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굶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죽네 사네 하고 끝내는 고생하다가 죽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나냐면 여러분의 생활이 때문입니다. 60%는 바로 여러분이 의사가 돼야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틀린가. 여러분 몸 속에 수 없는 생명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물 한 컵을 마셨다 할 때 혼자 마셨다 하실 수 있으겠습니까? 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 혼자 먹었다 이럴 수 있으겠습니까? 나는 관리인이고 바로 심부름꾼이고 집합소예요. 그쪽에서 모든 생명들이 나 좀 달라고 할 때마다 나는 먹고 싶어서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믿고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 할 때 바로 대뇌로 통신이 되고 중뇌 또는 소뇌를 거치면서 중뇌에서 판단하고 책정해서 사대로 통신을 하면 통신을 받은 생명들은 모자라는 데는 채워주고 넘치는 데는 줄이고, 이렇게 작용을 해서 끌고 다니는 자기 몸을 살리며 건강하게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심성과학이기도 하고, 심성철학이기도 하고, 심성천체물리학이기도 하고, 심성천문학이기도 하겠지요. 허허.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땅 속에서 금이 나오는 원리도 그렇습니다.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금이 될 수도 없고, 금을 켈 수도 없고 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세계가 금속이 아니면 쓰지를 못하듯이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그거 아니면 못 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선장이라는 자체의 원리는 바로 금속과 같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보배죠.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어요, 지평선이 바탕으로 돼 있으면서 우주를 형성시켰듯이, 지금 여러분의 몸 자체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지·수·화·풍을 먹고살지요. 그런 반면에 거기에 자력과 원리가, 힘이 주어져 있던 애입니다. 뭐가 주어져 있는가? 자력·통신력·공력·전력 네 가지가 모두 여러분한테 본래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道요 참선 만 곳에서 찾지 마세요

그런데 임진왜란의 호국영령들과 더불어 평민으로서 또 많은 조식을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다는 사실, 평민이 수없이 죽어갔다는 사실이여 임제 처하에 앞장서서 총병이로 끌려간 군인들, 징용으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힘이 부족하고 먹지 못해서 지치면은 실향대로 끌려가고 또는 정신대로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으니만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냥 꼭 싸서 죽이는 것 같으니 얼마나 다 행이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닙니다. 역사라고 이름을 해서 그렇지 어제오늘 내일도 없는 오늘, 그 이름을 어찌 다 말로 하리까.

그리고 6.25가 닳을 당시에 한강 다리가 끊어지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차와 사람이 그대로 물로 들어갔습니다. 모래톱에서 총을 맞아서 다리가 떨어지고 이래도 그냥 휩니다. 아무 정신 없이, 살아있기만 하면 팔이 떨어져도 그냥 휩니다. 군인들도 평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한강 저쪽 한강 이쪽, 장작 개비 던져놓듯 포격포격, 폭이 보이지 않았습니. 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모두가 얼마나 아팠으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나 그뿐입니까?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에 그것도 전세를 겨우 모면해서 인제 내 집인가 했더니 그것도 갈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영령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는 이렇게 텅텅하게 텅텅 몇 번하고 말았습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년 전 아니 십 년 전, 이십 년 전, 삼십 년 전, 사십 년 전, 몇 천년 전을 떠나서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사실을 아마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두 공(功)한 속에 같이 한마음으로써 생사천에다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는 캠핑 나와서 한철 서로 인연이 되어서 만나서 서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저 걸망 하나 짊어지고 캠핑 갔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선장으로 자기를 다스린다, 다스려서 놓는다, 일입한다 말

그리고 6.25가 닳을 당시에 한강 다리가 끊어지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차와 사람이 그대로 물로 들어갔습니다. 모래톱에서 총을 맞아서 다리가 떨어지고 이래도 그냥 휩니다. 아무 정신 없이, 살아있기만 하면 팔이 떨어져도 그냥 휩니다. 군인들도 평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한강 저쪽 한강 이쪽, 장작 개비 던져놓듯 포격포격, 폭이 보이지 않았습니. 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모두가 얼마나 아팠으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나 그뿐입니까?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에 그것도 전세를 겨우 모면해서 인제 내 집인가 했더니 그것도 갈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영령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는 이렇게 텅텅하게 텅텅 몇 번하고 말았습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년 전 아니 십 년 전, 이십 년 전, 삼십 년 전, 사십 년 전, 몇 천년 전을 떠나서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사실을 아마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두 공(功)한 속에 같이 한마음으로써 생사천에다 연결시켰습니다.

제주에도 법회가 있어서 엇그저께 갔었습니다. 거기도 자리를 꼭 채웠습니다. 허나 처음에 제가 들어섰을 때에, 4·3 병고가 생겼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숨어서 살아나려고 골골마다 열쓰고, 어떤 돌 뿌리든지 흙 뿌리든지 들어가서 살 양으로 애를 쓰다 죽은 영령들이 전부 뱀으로 화했어.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합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하고 한 말을 잘 해서 이끌어 가는, 바로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숨어서 살 양으로, 숨어야 산다 그 마음이 오직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였던 것은 저쪽으로 하여금 죽고 이쪽으로 하여금 죽고, 그냥 그대로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제주에서는 참변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을 지내는데 오늘 마지막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뱀이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 한 하더라도 장 속에 들어가 있고, 뱀이 뱀쪽에 와서 앉았고, 지붕 꼭대기에 와 앉았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열 마리 뭉쳐서 그냥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자동적인 컴퓨터, 오싹이라는 자체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심안으로 보는 천안통, 심안으로 듣는 천이통, 또는 가고 움직이지 않고 오는 신족통.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타심통. 부모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키는 데는 남녀의 정자 난자를 형어서 바로 삼합이 한데 합쳐짐으로써 형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성을 시켜서 자기가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부모는 인연에 따라서 빌려서 내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오싹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나왔으니, 내가 어디서 나온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속명통(宿命通)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다 포함해서, 한 가지만 거기서 떨어져도 자동 컴퓨터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섯 가지가 다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반면에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자 운명, 고라는 것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는냐고 하는데, 삼천 년 전이나, 몇 억 광년 전이나, 지금이나 1초 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숨에 끄달리고 관습에 끄달려서 그렇지, 한번 생각을 넓고 깊게 해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본래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착을 두고 붙잡고 늘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를 가져야 한다. 내가 말했다 내가 빌었다 이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여

그리고 6.25가 닳을 당시에 한강 다리가 끊어지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차와 사람이 그대로 물로 들어갔습니다. 모래톱에서 총을 맞아서 다리가 떨어지고 이래도 그냥 휩니다. 아무 정신 없이, 살아있기만 하면 팔이 떨어져도 그냥 휩니다. 군인들도 평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한강 저쪽 한강 이쪽, 장작 개비 던져놓듯 포격포격, 폭이 보이지 않았습니. 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모두가 얼마나 아팠으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나 그뿐입니까?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에 그것도 전세를 겨우 모면해서 인제 내 집인가 했더니 그것도 갈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영령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는 이렇게 텅텅하게 텅텅 몇 번하고 말았습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년 전 아니 십 년 전, 이십 년 전, 삼십 년 전, 사십 년 전, 몇 천년 전을 떠나서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사실을 아마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두 공(功)한 속에 같이 한마음으로써 생사천에다 연결시켰습니다.

제주에도 법회가 있어서 엇그저께 갔었습니다. 거기도 자리를 꼭 채웠습니다. 허나 처음에 제가 들어섰을 때에, 4·3 병고가 생겼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숨어서 살아나려고 골골마다 열쓰고, 어떤 돌 뿌리든지 흙 뿌리든지 들어가서 살 양으로 애를 쓰다 죽은 영령들이 전부 뱀으로 화했어.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합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하고 한 말을 잘 해서 이끌어 가는, 바로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숨어서 살 양으로, 숨어야 산다 그 마음이 오직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였던 것은 저쪽으로 하여금 죽고 이쪽으로 하여금 죽고, 그냥 그대로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제주에서는 참변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을 지내는데 오늘 마지막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뱀이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 한 하더라도 장 속에 들어가 있고, 뱀이 뱀쪽에 와서 앉았고, 지붕 꼭대기에 와 앉았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열 마리 뭉쳐서 그냥

개발전소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용광로에다 찌그러진 쇠를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재성이 돼서 나옵니다. 용광로에다 넣어서 다시 만들어서 여러 가지들 다 생산시켜서 내보냅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가 없으니 없으니 이런 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를 형성시킨 고통이나 나를 이끌어 가는 거니까 내면세계 정신계를 파악하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할 것도 없어요. 하늘이 무너진 데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론으로만 배운다고 그래서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배우지 말고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선(禪)과 교(敎)는 둘이 아닙니다. 천지도 둘이 아니요, 남녘도 둘이 아니요, 북녘과

그리고 6.25가 닳을 당시에 한강 다리가 끊어지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차와 사람이 그대로 물로 들어갔습니다. 모래톱에서 총을 맞아서 다리가 떨어지고 이래도 그냥 휩니다. 아무 정신 없이, 살아있기만 하면 팔이 떨어져도 그냥 휩니다. 군인들도 평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한강 저쪽 한강 이쪽, 장작 개비 던져놓듯 포격포격, 폭이 보이지 않았습니. 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모두가 얼마나 아팠으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나 그뿐입니까?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에 그것도 전세를 겨우 모면해서 인제 내 집인가 했더니 그것도 갈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영령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는 이렇게 텅텅하게 텅텅 몇 번하고 말았습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년 전 아니 십 년 전, 이십 년 전, 삼십 년 전, 사십 년 전, 몇 천년 전을 떠나서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사실을 아마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두 공(功)한 속에 같이 한마음으로써 생사천에다 연결시켰습니다.

제주에도 법회가 있어서 엇그저께 갔었습니다. 거기도 자리를 꼭 채웠습니다. 허나 처음에 제가 들어섰을 때에, 4·3 병고가 생겼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숨어서 살아나려고 골골마다 열쓰고, 어떤 돌 뿌리든지 흙 뿌리든지 들어가서 살 양으로 애를 쓰다 죽은 영령들이 전부 뱀으로 화했어.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합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하고 한 말을 잘 해서 이끌어 가는, 바로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숨어서 살 양으로, 숨어야 산다 그 마음이 오직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였던 것은 저쪽으로 하여금 죽고 이쪽으로 하여금 죽고, 그냥 그대로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제주에서는 참변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을 지내는데 오늘 마지막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뱀이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 한 하더라도 장 속에 들어가 있고, 뱀이 뱀쪽에 와서 앉았고, 지붕 꼭대기에 와 앉았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열 마리 뭉쳐서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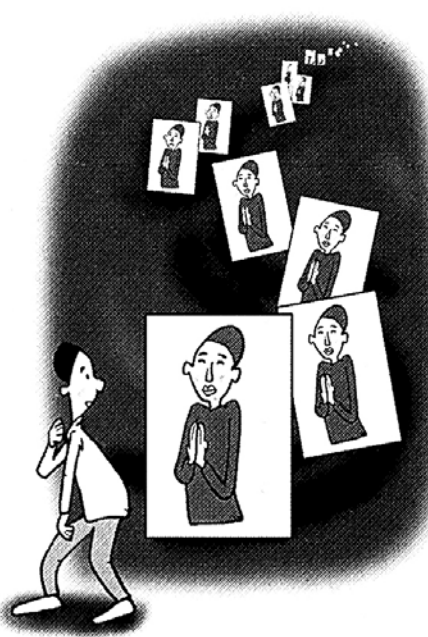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늘이 무너져
세상이 다 죽어도
플 한포기 살아있으면
불교는 살아 있는 것

젊음도 둘이 아닙니다. 일체가 다 둘이 아닙니다.

만 어렵 반쯤이 없지는 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암흑세계로부터 지·수·화·풍이 한데 모여서 지평선에 에너지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또 우주를 형성시켰고, 우주 형성되는 반면에 은하를 형성시켰고, 또 불바퀴를 형성시켰고, 지금은 불바퀴라고 합디다 마는 큰 별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느 회사 같으면 회장을 하나 세웠다 이거죠. 그 회장으로 인해서 모든 은하의 별들이 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냐다 들었 다 하는 작용을 하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이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작용하고 이러죠? 그거와 같이 일체 우주의 전체 태양계와 외성계 모든 별성들이 모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는 작용으로 하여금 모두가 생선이 되고, 모두가 웃을 벗고 다시 새 웃을 입고 하는 작업을 지금 실 사이 없이 하고 있는 것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계가 바다 밑 바닥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박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파도가 일고, 위에 것이 아래로 가고, 아래가 위로 오면서 순환을 거듭거듭 해야 만이 위거는 아래 걸 먹고 아래 거는 위 걸 먹고, 찬 기운을 온기로 먹을 것을 모두, 물이 모두 비타민C처럼 공기가 필요로 모든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종단도 역시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 작용이 없다면 어떻게 개선이 되며, 어떻게 개혁이 되며, 어떻게 발전을 이루며,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플 한포기만 살아도 불교는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공부라는 게 너무나 알고 너무나 찾으라는 겁니다. 달마대사도 그랬고 사대성인들이 다 너무나 알고 너무나 찾았다는 겁니다.